

시끌벅적 e-스타



“평화시위 부탁할게요” 의경 자작곡 인기

“단 한 마디 불평 없던 방패의 비명소리로 는 부족했나요. 붉게 물든 내 얼굴이 그대의 격한 감정을 달래줬나요...”

경찰서 의경(의무경찰)이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기원하며 직접 만든 ‘평화 시위의 소 망을 담은 자작곡’이라는 동영상 이 인기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뒤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고 있으며 전국 전·의경 등 네티즌들의 댓글도 수백여개가 달려 있다.

동영상을 올린 이는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방법 순찰대 조정호 수경(24).

조 수경은 “집회 현장에서 다친 동료들, 부상으로 입원중인 동료들을 담은 동영상 을 보고 많이 울었다”면서 “‘부탁할게요’라는 노래 제목처럼 그저 평화 시위를 바란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수경은 동영상에 삽입된 ‘부탁할게요’ 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해 내무반 동료였던 우재명 씨와 함께 불렀다. 철원경찰서 전경대에서 근무했던 유지훈씨가 피아노를



조정호 수경

말았다. 유씨는 지금 그 례 ‘canvas’의 피아니스트다. 거의 대부분을 전·의경들이 함께 만든 작품인 셈이다.

편곡 전문가 송영호씨가 편곡을 맡았고 영상 은 경찰청의 관계인 영 상을 활용, 편집했다. 작업 기간은 3개월 구 상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만들었다. 휴가 기 간동안 밤새서 제작했다는 것.

조 수경의 경우 동영상 을 즐기는 네티즌 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스타’다. 조 수경 이 지난 6월 직접 작사·작곡한 ‘기여해줄래’ 라는 곡은 각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지면서 일반 노래방 책자에 까지 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부탁할게요라는 노래까지 인기 를 끌면서 홈페이지(cafe.daum.net/namelessapp)도 만들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삶을 살아가는데 음악 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 과 빵만 있으면 살 수 있 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어떤 잡자리에서 잘 것 인가 어떤 요리를 할 것 인가 무엇을 입을까 사 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 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 가”에 대해서 음악은 특 별한 설명을 하지 않 아 도 너무 잘 가르쳐 준다.



링크 센터의 음악 감독이며 가장 유명한 재즈 음악인 중의 한사람인 ‘윈턴 마살리스’는 그 령게 말했다. 흑인 음악은 그 중에서도 ‘블루스’는 아주 미

블루스에서부터 21세기 의 재즈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느끼 게 해주었고 넘쳐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며 비교 적 탁하지만 부드럽고 언제나 마시면서도 존재 를 의식하지 못하는 친 속한 우유와도 같은 그 러면서도 알게 혹은 모 르게 창조적인,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음악이 있었을 거라고 믿게 했던 ‘빌 위더스’의 음악이 있었다. 그는 찰리 파커나 마일즈 데이 비스 처럼 위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음악 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세상을 도무지 알 수 없어 힘들어 했던 나에게 오래된 친구와 나

‘빌 위더스’ 그 한없는 여유와 자유

천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데렐라’와 도 같은 존재의 음악이었다. 더 늦게 태어난 재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잣대에 그려진 크고 작은 눈금이 음악 안에서 박자와 비트라고 한 다면 재즈에서는 연주할 때 마다 눈금을 새로 그린다. 그것은 재즈의 가장 큰 매력에 해당한 다. 행위예술로서의 즉흥연주, 그것은 ‘돈 맥 린’이 그의 노래 ‘빈센트’에 말했듯이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자유를 주려 했다면 ‘반 고흐’ 처 럼 ‘인상파’의 등장 을 거기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 으나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시작이슬은 시간적으로 그보다 앞섰지만, ‘표현의 자유’ 그 것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만큼 알게 하는 일 에 흑인 음악은 약 100년의 시간을 소모했다. 그것은 재즈를 포함한 흑인 음악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운명적인 힘이다. 필자의 아가는 음악 중에는 흑인 음악 역사의 그 모든 것, 함축된 시어(詩語)처럼 19세기에 시작된

누는 친숙한 대화의 언어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비교적 쉬운 말을 사용한다 해도 세상 의 어떤 생각과 느낌도 나눌 수 있다는 보편타 당의 논리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기도 했다.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그녀가 떠 날 때 내 삶은 어두워요) It's not warm when she's away(그녀가 떠나면 온기도 남아 있지 않지요).

‘에인 노 션 샤인’의 노랫말은 그렇게 쉬운 말로 시작하는데 단순한 블루스적 가사와 화 성에 유연한, 너무나 유연한 그루브, 거기에 몸 의 일부를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생각도 마음 도 조금씩 움직인다. 그루브를 타게 될 것이 를 읽듯이 생각이다. 생각의 여유, 자유의 자유 표현의 여유와 자유, 그것은 대단히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작은 틈, 작은 여유, 아무것도 아 닌 것만 같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음악 칼럼니스트>

83. 최근 이 나라 반정부 시위대 수만명이 기둥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당국의 강제진압으로 시위대 수십여명이 숨지는 등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송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4일(음 8월 24일 辛未) 36년생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48년생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 기쁜 날이다. 60년생 말다툼만 피하면 평화스런 하루로다. 72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바둑소식 139, 137, 130, 129, 131, 132, 128, 134, 133, 141, 140, 151, 148, 142, 144, 147, 143, 145, 145, 152, 149, 136, 135, 146, 146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결승국 白, 드디어 백기 들다 8보(128~153) 白 이창준 5단 (주)수림) 黑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A) 반상 최대인 흑 ▲가 놓여서는 거의 파장 분위기. 초반의 손실을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둑소식 44년생 상대의 고민을 도우면 자신도 편안하다. 56년생 딸들을 살펴봐 대고 가 반생 할 수다. 68년생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라 고민이 커진다. 80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들어오면 복도 달아나니 원만하게 대처하라.

굿모닝 잉글리쉬 <1004> What's your neighborhood like? 당신 집 주변은 어떻습니까? A: So, what's your neighborhood like? B: My neighborhood is very quiet and clean.

오하오우 니혼고 <1004> ゲームセンターに寄(よ)り道(みち)して行(い)かないか. 게임 센터에 들렀다 가지 않을래? A: 山田君(くん)今日の仕事(しごと)もう終(お)わった。一緒(いっしょ)に帰(かえ)ろうよ。

니하오 쑹구위 <194> 请您填一下单子 명세표에 기입해 주세요 A: 邮费多少? You fei duō shǎo? B: 二百七十块, 请您填一下单子.

한자 이야기 <621> 삼십육계(三十六計) 석삼, 열십, 여섯 육, 셋 계 '삼십육계(三十六計)'는 흔히 '삼십육계에 줄행랑이 으뜸'이라고 말하나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다'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